내사람 심기·고무줄 잣대…민주 '구태 공천' 비판

무능한 공천 관리·불공정 책임론
전남 선거구 8곳 공천 불복·반발
국회의원들 총선 겨냥 세력 확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천 기준과 자신들의 향후 재선 행보를 위한 공천 행태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혁·혁신 공천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고 약속해놓고도, 이해 관계에 연연해 곳곳에 들쭉날쭉한 기준을 적용해 '쇄신 공천 흉내만 냈다'는 비판이 공천 이후에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서다. 책임있는 대응·해명, 사과 등에는 인색해 '정권 견제론', '정권 회초리론'이라는 도깨비 방망이만 휘두르면 유권자들이 선택해줄 것이라는 오만함을 심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능한 공천 관리·불공정 공천 책임론=16일 지역 정치권과 민주당 전남도당 등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22개 선거구 중 8곳에서 공천 불복이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장흥군수 경선에서는 김승남 전남도당 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공정 논란 끝에 재경선·재심 신청 끝에 공천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탈당·무소속 출마, 금품 제공 의혹 등이 추가로 불거지면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당장 전남의 경우 22개 선거구 중 8곳에서 공천 불복이나 반발 움직임이 제기된 상황이다. 장흥군수 경선에서는 불공정 논란 끝에 재경선·재심 신청 끝에 공천이 마무리됐지만 탈당·무소속 출마, 금품 제공 의혹 등이 추가로 불거지고 있다. 강진군수 경선도 지지 후보별로 지역이 쪼개지는 등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비방·음해성 자료가 언론에 제공되는가 하면, 금품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경찰 고발로 이어졌고 특정 후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지역민들의 항의 시위도 빚어졌다.

◇국회의원들의 자기사람심기식 공천 반발도=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중이 반영된 하향식 공천, 이른바 자기사람심기식 공천에 따른 반발도 어김없이 재현됐다.

순천지역의 경우 시민단체인 순천시행의정모니터연대까지 나서 "개혁과 혁신은 사라졌고 민주적 리더십은 없었다"면서 강도높게 비판했다. 순천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소병철 국회의원이 지역 보좌관을 지냈던 김진남 후보(순천 5)가 광역의원에 홀로 공천을 받는가 하면, 소 의원 지역사무소 전직 사무국장 출신인 정병회 후보(순천 다), 정홍준(순천 다) 후보와 소 의원 비서를 지냈던 정광현(순천 라) 후보가 경선 없이 민주당 기초의원 후보로 선정된 사실이 전해지면서 사실상 '지역 국회의원 찬스'로 공천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남도당과 소병철 의원 측은 "순천 도의원 공천을 받은 김진남 후보의 경우 접수 뒤 선거구가 변동되면서 다른 후보들이 나서지 않아 단수 공천됐고, 정병회·정홍준 후보는 같은 선거구에 지원한 3명의 후보 중 결격사유가 있는 한 명의 후보가 공천 배제되면서 자연스럽게 단수 공천을 받게 됐다"면서 "정광현 후보도 공천 신청자가 공천자 수와 동일했고 청년 정치인 가점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받았다"고 해명했다.

여수에서도 공천을 둘러싼 여수을 지역위원장인 김회재 의원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다. 여수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전창곤 예비후보는 "공정하게 경선 과정을 관리해야 할 공관위원이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시·도의원 후보자를 줄 세우기 하는 행태는 명백히 비난받아야 마땅한 행위"라며 김 의원을 겨냥, 공개 저격했다.

김회재 의원은 지난달 경선을 앞두고 강화수 여수시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찾아 "모든 부분에서 강화수 예비후보가 여수시장으로 적임자"라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민주, 이재명 참석 선대위 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과 홍영표·김남국·한준호·이병훈·이형석·이용빈·조오섭 국회의원을 비롯,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광역·기초의원 후보 등 100여명은 17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강추캠프'에서 민주당 광주시당 필승결의를 위한 선대위 2차 회의를 열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 복당 딜레마'

당 위한 탈당 평가 속 복당되면 '꼼수 탈당' 스스로 인정 비난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무소속 민형배(광산을) 의원의 복당 문제로 딜레마에 빠졌다.

당의 최대 현안 법안 처리를 위해 당을 나간 만큼, 서둘러 복당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꼼수 탈당을 통해 다수당이 횡포를 부렸다"는 지적이 상당해 민주당이 고심에 빠졌다. 법안 처리 이후 기다렸다는 듯 민 의원의 복당이 성사되면 민주당 스스로 '꼼수 탈당'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비대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한 지도부 인사가 "(당 운영이 선대위 체제로 전환되면 비대위 회의가 열리지 않아) 주요 사안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결정하게 되는데 복당 문제도 (비대위가 아닌)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면서 민 의원의 복당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에 윤호중 위원장이 "복당 등 중요 문제가 있으면 임시 비대위를 열어서 결정하겠다"고 서둘러 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논의된 내용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민 의원의 복당 절차를 사실상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민 의원의 복당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일부 비대위원의 활동이 제한을 받는 선대위 체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아니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한 비대위원은 "민 의원의 탈당 과정에 비난이 많았고, 비대위 내부에서도 찬반 논쟁이 뜨거웠다"면서 "당헌·당규에 따라 탈당 1년 후 복당 규정을 어기면서 민 의원의 복당이 추진된다면 지도부가 '꼼수'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지도부 일부 인사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 의원의 복당을 서두르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하지만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준다는 신중론도 너무 커서 공개적인 논의는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앞선 13일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광산을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시장 후보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까지 맡았다"면서 "민 의원의 꼼수탈당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군공항특별법 민주당이 반드시 제정"

광주시당 필승결의 선대위 회의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는 17일 "광주 군공항특별법을 민주당이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선대위원장과 강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강기정 후보 선거캠프인 '강추캠프'에서 '민주당 광주시당 필승결의를 위한 선대위 2차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광주 군공항이전 특별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정하고, 반드시 제정해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며 "광주에 내려오기 전 당과도 상의를 마쳤다. 군공항이 국가시설인 만큼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에 더하여 국가가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 삶을 통째로 바꾸고 새로운 삶을 부여한 사회적 어머니인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명문화도 추진하겠다"며 "역사의 진실 앞에 새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강 후보는 "군공항 이전 문제는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다"면서 "민주당과 손을 맞잡고 국가 주도 방향으로 가되 광주시도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혁신을 통해 광주에서 희망의 바람, 승리의 바람, 필승의 바람을 만들어 수도권까지 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와 전남이 정책협약을 통해 상생 첫 단추를 잘 꿨다. 지역 소멸과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행정 단위를 넘어선 초광역협력사업이 중요한 시대다"며 "군공항 이전 문제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첫 번째 모델로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해 당당하게 빠르게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떠나는 정은경, '정치방역' 비판에 "과학방역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7일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할 기회를 갖게 돼 큰 보람이고 영광이었다"며 퇴임의 변을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기회를 드릴 테니 마지막 소회를 말씀해보시라'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 청장은 "코로나 위기에서 가장 어려운 건 불확실성이었다"라며 "불확실성이 많아 정책 결정에 어려움도 한계도 많았지만, 상임위에서 법률·예산·정책 지원을 많이 해줘서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 정치방역을 했냐'는 민주당 신현영 의원 질문에 "과학 방역을 했다"고 답했다.

다만 "백신이나 치료제 등은 임상시험을 거쳐 근거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거리두기나 사회적 정책들은 사회적 합의나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과학방역과 정치방역을) 구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그간의 K 방역을 '정치방역'으로 규정하고 '과학적 방역'을 내세운 것에 대해 반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중앙신용
꼭! 받아야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든든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I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